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빼앗긴 세월 8년

김 종 대

(이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에서 삼락일본어학원을 운영하던 본인은 1974년 5월 1일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연행되어 남산분실로 도착하자 곧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학생에게 돈을 얼마나 주었느냐고 추궁 받으며 몸수색을 당하고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며칠 후 중앙정보부 남산분실로 끌려가 지하실에서 몽둥이 고문과 여러 차례 물고문으로 의식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면 찬 물을 끼얹어 정신이 들게 되었다. 그러나 젓 먹던 힘까지 다 빠져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이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취조관의 취조가 시작되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아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책상 위에서 취조관이 진술 내용을 보지 못하게 손으로 가리고 쓰거나 또는 책상 밑 자기 무릎 위에 놓고 쓰는데 언뜻 보니 공산주의라는 글자가 보였다. 예감이 이상해서 “왜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느냐” 항의를 하니 “그래!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 봐” 하고 고함을 치기에 “나는 국민학교부터 사범학교까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고 국민학교 교사로서 민주교육을 시킨 사람이다. 어째서 내가 공산주의자냐!” 하고 다시 항의하자 “이 새끼, 너를 공산주의자로 만드냐? 이수병(사형)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지!” 하기에 “왜 이수병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냐? 나와 같이 사범학교를 나온 내 친구인데!” 하고 또 큰소리로 항의를 하니 “이 새끼, 건방지다” 하면서 눕혀 놓고 발바닥을 수없이 때린 다음 본인이 앉았던 결상을 없애 버리고 구두땀이 통을 가져와 앉게 했다. 본인 얼굴이 책상 밑으로 내려가 진술서를 볼 수 없게 되자 취조관은 책상 위에서 마음 놓고 진술서 내용을 지시된 각본에 따라 조작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조작된 것이 민청학련 배후 조종 세력으로 공산 폭력 반국가단체인 ‘인혁당재건위’가 만들어졌다. 1974년 4월 3일은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박정희 군사

독재 타도를 위해 전국적으로 쫓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맞서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잡겠다는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여 관련 학생들과 성직자 그리고 재야 민주인사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이나 강제 연행하였으며 그 중에 204명을 구속 송치하여 사형부터 5년까지 중형을 선고하였다. 박정희 군사독재 하부기관인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인혁당 재건위에 관계된 7명과 민청학련에 관계된 1명 등 8명을 30분 간격으로 처형함으로써 세계 시민단체로부터 야만 국가로 지탄받게 되었고 청와대로 항의 편지가 수없이 날아왔다.

중앙정보부의 취조는 몽둥이고문, 잡 안 채우기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등 50일 동안이나 받았는데, 특히 사형을 당한 분들은 무자비하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이수병(사형)의 시신에는 고문 받은 흔적이 시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김용원(사형)은 구치소 감방으로 밤중에 실신상태에서 여러 번 교도관에게 업혀 들어 왔으며, 하재완(사형)은 창자가 항문으로 나와 탈장이 되고, 우홍선(사형)은 고문에 못 이겨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했으며, 송상진(사형)도 왼손 동맥을 끊어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봉대를 감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분들도 고문후유증을 갖고 있다.

검사취조는 검사가 중앙정보부 남산분실로 차출되어 와서 고문 받던 그 장소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검사취조 받기 전에 지하실로 끌려 가 검사 앞에서 부인하면 죽인다는 협박공갈을 받았다. 검사 앞에서 부인하다가 다시 지하실로 끌려가 고문 받은 사람도 많았다.

군사재판은 날치기 영터리 재판이다. 보통군법은 가족 1명만 방청하게 하고 그 외는 아무도 방청할 수 없었다. 신문도 특별 통제받아 재판상황을 정확히 보도할 수도 없었다. 법정 안과 복도에는 헌병이 늘어서 있고 피고인의 진술도 제대로 못 하게 하며, 현장검증, 증인채택도 모두 거부당했고 완전 분리심리로서 한 사람씩 재판관 앞에 불러가서 법정심리를 받았다. 고등군법은 민청학련 학생과 함께 54명을 좁은 법정에 집어넣고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직업 등 인정신문만 하고 법정심리와 변호사의 반대신문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빼먹고 판결하였다.

증거물이라고 압수하여 갖다 놓은 것은 기껏해야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중에 파는 일본책 몇 권,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 김대중의 대중경제 백문백답, 김지하의 오적시, 학생선언문뿐이며 인혁당 재건을 위한 ‘행동강령’이나 ‘규약’ 등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유일하게 증거로 내놓은 것은 온갖 잔인한 고문으로 피의자를 초죽음 상태로 만들어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쓰게 하거나, 취조관이 각본에 따라 써 넣은 ‘피의자 심문조서’뿐이다.

본인에게 적용된 것은 고작 경북대학교 민청학련 선언문을 탐독하고, 취슬령 주점에서 이수병(사형), 김용원(사형), 유진곤(무기)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를 비방하며 민청학련을 지지한 것으로 긴급조치 1,4호 위반, 김용원 집에서 황현승(15년), 이창복(15년) 등 5명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 하여 국가보안법위반과 내란음모죄, 본 적도 없는 북한 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보고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반공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받게 된 형량은 22명 중에 3분 1은 사형, 또 3분의 1은 무기, 그 외 3분의 1은 20년 또는 15년의 유기형이었다.

인혁당재건위란 명칭은 사형당한 도예중 선생을 비롯하여 3~4명이 1964년도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갖다 붙인 이름이고, 인적 구성을 보면 과거 4.19 이후 장면 민주당 정권 때 민주·자주·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합법적인 혁신운동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철저히 반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극악무도한 고문으로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만들게 했고, 전시에나 있을 법한 날치기 군사재판으로 정당한 절차도 없이 15년에서 극형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20년 형을 선고받은 본인의 경우는 박정희가 제부하의 총알에 맞아죽은 다음 형집행정지로 8년 만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수병 선생을 비롯한 여덟 분은 구속된 지 1년도 못 되어 형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즉, 법을 빙자한 사법살인을 한 것이다.

변호사와 가족면회 한번 시키지 않고 서둘러 사형시킨 것은 인혁당 조작 사건이 폭로될 우려도 있고 또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학생 시민에게 일종의 공갈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뒤늦게 알았지만 법정에서 진술한 공판기록도 조작하였고 사형당한 분들의 유언까지도 조작했다. 또 사형시킨 몇몇 시신은 유가족에게 주지 않고 강제로 화장까지 시켰다

박정희는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22명으로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어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50명 선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일선에서 취조하고 고문하던 하수인들이 50일 동안 21명을 조작하는데도 힘이 들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반항하여 취소된 일이 있다. 그리고 석방 구명 운동을 하던 시노트 신부와 오글 목사를 국외로 추방하고 구속자 배우자를 중정에 연행하여 석방운동을 못하게 하며 남편이 공산주의자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또 흥분제를 먹이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른 악랄한 인간들이 바로 박정희와 중앙정보부 집단들이다.

민주·자주·평화통일을 갈구하던 고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언젠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때 고인들과 뜨거운 가슴을 맞대고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림기만 하다.